

K형! 우리는 오늘 매우 큰 충격속에 묻혀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 잠시 뉘두리를 하립니다.

옛날 이야기로 구리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향해서 부리로 쪼고 쪼아대다가 죽었다는 앵무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마도 거울속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쪼는 앵무새의 아픔과 시련을 겪은 것과 같이 가슴아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맹수들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헛바닥으로 핏내고 합니다. 아픈 상처를 육신으로 건드려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마치 오늘의 우리 건축인들이 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이나 허영이나 자위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솔직하고 허식없는 모습을 조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졌더라도 이를 감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애정이 클수록 절망도 크고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기 환멸도 높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면에서만 우리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옛날 그 앵무새처럼 또 상처를 핏아야 하는 야생 동물처럼 우리는 먼저 아파야 하고 아픔의 시련을 겪어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반성과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역사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데 최근 우리는 몇년 동안에 연이은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분개하고 후진국성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나라가, 또 2002년 월드컵축구를 유치한다는 나라가 연이은 후진국성 대형 참사를 보고 사고공화국으로 별명을 붙여 놓았으니 국제화가 모자라 세계화 한다는 정부의 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개방과 함께 선진 건설업체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 건설업체나 건축계는 자성은 커녕 부실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인·건축인이 변하지 않는 한 건축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실이나 사고 근본원인이 결국은 관련 종사자들 개개인의 자질부족과 안일 무사주의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K형에게

To Mr. K

張錫雄 /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ang Suk-Woong

21세기도 불과 몇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화도 중요하고 국민소득 \$10,000도 좋지만 자기 분수에 맞고 삶의 가치를 누리며 믿음있는 내실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나 로마에는 기원전 이전의 건조물들이 아무 탈없이 오늘날에도 우람한 자태로 찾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주 불국사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많은 유산들은 세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경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이은 대형 참사며 더욱이 삼풍백화점 붕괴가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이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오직 잘 살아보자는 기치로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우리의 가치관에 혼돈을 가져왔고, 황금만능의 시대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큰 문제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팽창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학제일까요?

또한 오늘의 건축사시험 제도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창의성을 요구하는 양질의 건축을 바라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식의 창의적인 설계를 입찰하는 제도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선진 외국에 비하여 절반도 안되는 그나마 규정된 설계비나 감리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예산부족이며, 관행이 어떻고 하며, 횡포를 부리는 건축주나 관청의 발주자의 무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비건축전공자로 구성된 공무원이 각종 도면을 검토하고 일용직 근무자까지 건축행정에 투입하는 사례도 있는 현실이고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지심의, 교통영향평가, 미관심의, 에너지심의, 굴토심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정을 겪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제도가 과연 아름답고 좋은 건축을 위한 것이며, 환경을 보존하고 후손을 위한 올바른 제도일까요?

감리는 분명히 설계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건기법이란 제도로 감리를 분류한 제도가 양질의 건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최저 낙찰제도에 의한 건설공사며 이에 따른 형식적이면서도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이 과연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량한 콘크리트를 단속 한다면서 불량한 시멘트를 수입하는 수입상을 관망하는 정부나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사용토록 허가한 관련부처, 이를 사용한 레미콘의 KS표시 생산업체 등의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를 제재하지 않은 제도적 모순은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이토록 우리는 총체적 모순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써서 치유하여야 할 것인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K형! 넋두리는 한이 없으나 이제 그만 하여야겠습니다.

그래도 뜻있는 건축인들은 참건축을 위하여 밤잠을 설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제현상설계로 실시되어 역사에 유래없이 무려 46개국에서 341점의 작품이 출품되므로써 우리의 문화건축 예술을 세계의 건축가에게 알려 반영토록한 건축인들의 깊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뜻을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하루 빨리 건축설계계, 학계, 관계, 시공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앵무새나 맹수의 교훈으로 과감한 개혁을 하므로써 보다 아름답고 좋은 건축을 위하여 또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을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